

# 고대법학

2015 Summer, Vol. 10

발행일 2015년 7월 10일, 제10호 발행인 신영호 편집인 이대희 편집장 김재희(6기) 편집부 금현경(5기), 나지선(6기), 박민선(6기), 윤성진(6기), 이상호(6기), 김소정(7기), 김현중(7기), 조승원(7기) 발행처 136-7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421 FAX 02-927-8819 e-mail Kulawgive@korea.ac.kr 기사문의·제보 02-3290-2877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나무와물고기 TEL 02-3296-3746



## the Oasis for your life

- 02 LECTURE SUMMARY 명사초청 특강 VIA JURIS
- 04 PEOPLE OF KU LAW 김제완 법학연구원장 & 조영선 교수
- 06 KU FOCUS 인턴 및 취업설명회
- 08 KU SPOTLIGHT 미국 미네소타 주 램지카운티 검사장 John Choi 특강
- 09 KU NEWS 학회 및 세미나 소식
- 10 GRADUATE INTERVIEW 3기 이지은 변호사
- 11 KU REPORT 사이버법센터
- 12 INFORMATION 검찰심화과정 후기

정의를 위한 통찰과 경청

# 명사초청 특강 VIA JURIS

제 5 강 노환균 변호사

## 법조인의 길



4월 29일 노환균 변호사가 다섯 번째 VIA JURIS의 연사로 모교를 찾았다. 노환균 변호사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3년 3월까지 검사로 일하였으며, 현재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고려대학교 법조인 교우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강연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인의 모습과 법조생활의 소회,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혜나 마음가짐을 조언하였다.

### 정의로운 법치의 구현

노환균 변호사는 법조인을 한마디로 '법치주의의 구현자', 즉 법이라는 잣대로 기준을 세워 중심을 잡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잣대'는 시대에 따라 발전하되 단일한 것이어야 하며, '기준'은 원칙과 기본을 그리고 '중심'은 정의를 의미한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덕목으로서 신뢰를 짚어냈다. 판·검사와 국민, 변호사와 의뢰인, 그리고 법조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는 실력과 명예 그리고 정성을 통해 쌓이는데, 특히 많은 법조인들이 소홀히 하는 가치가 바로 정성이다. 우리 법조인들은 일상적으로 수백 건의 사건과 마주하지만, 평범한 사람에게 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는 일은 평생에 한 번 겪기도 힘들 만큼 낯설고 두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 법조인의 책임과 과제

노환균 변호사는 30년 이상을 법조계에 몸담았고, 그중 검찰에서 일한 세월만 25년에 이른다. 그는 공안검사로 일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현장에서 구현한다는 검사로서의 소명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직자로서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남북통일이라는 과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고려대 법과대학 선배로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모두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고대정신을 배우길 바란다'는 따뜻한 조언으로 강의를 끝맺었다. **KL**

제 6 강 이진강 변호사

## 법조인의 미래와 사명



5월 13일 VIA JURIS의 여섯 번째 강연자 이진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고려중앙학원 법인이사로 활동 중이다. 먼저 오늘 자신과 학생의 특별한 만남을 어린 왕자와 장미에 빗대며, 먼 선후배 사이에 불과했던 우리가 강연의 자리를 통해 더 깊은 인연으로 발전 하길 소망한다고 전하였다.

###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마음의 눈

이진강 변호사는 《두 번째 어린 왕자》라는 책을 소개하고 로스쿨 생활을 시작하며 학생들이 미래를 크게, 멀리, 넓게 볼 것을 조언했다. 자신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까지는 좁은 세상에 얽매어 있었다면서, 지금 학생들에게는 삼 년 후가 좁은 길로 보일 지 몰라도 얼마든지 넓은 세상으로 미래를 펼쳐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시켰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자기존중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자기존중을 통해 내면의 능력을 키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걸만 번치르르한 오만과는 달라야 할 것이며, 자기존중으로 겉과 안이 일치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 되어 자신감을 키워가길 당부했다.

### 인류를 위한 정의와 법

무엇보다 자기가 쌓은 공덕은 절대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음을 학생들에게 강조한 이진강 변호사. 자신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했고 그에 부합하기 위해 더 열심히 정진해왔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맡은 바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권하였다. 로스쿨에 들어온 법학도가 풀이될 책임은 3년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대한민국을 위해, 전세계의 인류를 위해 정의와 법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모두가 고대정신을 마음에 새길 것을 부탁하였다. 앞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시간을 갖고 인내와 끈기로 생활해 나간다면 큰 문제없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선배의 조언이 든든한 응원이 되었다. **KL**

'VIA JURIS'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13년부터 마련한 입문 프로그램으로 고대법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호에 실린 노환균 변호사의 '법조인의 길'과 이진강 변호사의 '글로벌 시대 법조인의 미래와 사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사명을 일깨워주었으며, 최교일 변호사의 'CEO의 리더십'과 오세훈 교수의 '국가브랜드와 공존의 가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선사하였다.

제 7 강 최교일 변호사

## CEO의 리더십



5월 27일 VIA JURIS 강연은 54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가 'CEO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진행하였다. 강의에 앞서 최 변호사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프랑스의 칼레시의 영웅들 이야기를 통해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자신이 체득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느낌을 순화하였다.

### 검찰의 능동성과 적극성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별반 다르지 않다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민형사상 재판 및 등기, 호적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소극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반해 검찰은 범죄수사, 경찰지휘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포지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검찰의 큰 역할인 경찰통제와 직접 수사 중에서 우리나라는 직접 수사에 더 큰 중점을 두는 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 검찰이 힘이 세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 정보가 검찰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감사원, 교육부 및 각종 기관의 범죄정보가 검찰로 모일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범죄정보팀을 통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검찰이 하는 일이 많고 검찰을 어떻게 견제하는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 절제와 겸손의 미덕

최교일 변호사는 지금도 매일 6시에 일어나 운동과 중국어 학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특히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절대 교만을 경계하며 자신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 나 자신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앎과 배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또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희생'. 부장검사 시절 검찰조직 내에서 섬기는 리더의 본이 되어터짐으로 손꼽혔던 그는 후배들 또한 숭현한 헌신으로 진정한 카리스마를 발휘하길 당부했다. 덧붙여 불굴의 도전정신과 희망을 품고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KL**

제 8 강 오세훈 석좌교수

## 국가브랜드와 공존의 가치



6월 3일 VIA JURIS 마지막 강연자는 변호사이자 前 서울시장,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오세훈 선배였다. 강연의 주제는 지금까지 법조인으로서의 길에 대한 주제의 강연들과 사뭇 달랐다. 그러나 오세훈 교수는 '국가' 브랜드에 대한 언급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기업, 또 개인의 이야기로 치환될 수 있다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 국가브랜드, 무엇이 만드는가

먼저 국가브랜드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지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기술력이 가장 높은 순위임에 반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디자인의 순위가 매우 낮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디자인과 국제사회 기여를 중시하고, 경제성장과 기술력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또 다른 지표가 제시되었다. 상반된 지표를 종합한 결과, 특히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나가야 하는지가 명확히 나타났고 이를 강조하는 오 교수의 견해는 설득력이 있었다. 이어서 디자인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중시하는 자신의 철학을 위해 노력했던 일련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 공존의 가치, 어떻게 만드는가

강연이 끝난 뒤 활발한 질문이 이어졌다. 강연주제인 국가브랜드와 관련해 복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제사회 기여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을 돕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며 '잘' 돕는 것이 중요한 데, 절대 조금해하지 말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디자인은 보여지는 것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무형의 서비스에도 디자인은 적용되고 디자인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에 있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교수의 강의는 법조인에 앞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면하는 실질적 과제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끝으로 그는 도전적으로 꿈을 높이 설정하라는 의미심장한 조언을 후배들에게 남겼다. **KL**



## 법학연구의 산실, 진화하는 인프라를 구축

김제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장

고려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원은 1960년 발족한 이래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학문 연구 및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학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산하에 23개의 전문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센터들이 활발히 연구할 수 있도록 각종 기회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3월 김제완 교수가 새로 원장으로 취임하며 혁신과 변화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신입 법학연구원장 김제완 교수를 만나 포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관해 들어보았다.

### 법학연구원 역할의 핵심은?

법학연구원은 그 주요 활동으로서 3개의 저널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문 저널인 <고려법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학 저널로서 연간 4회 간행되며, 영문 저널인 <KULR>과 <ABL>은 각각 연 2회 간행되어 우리의 법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3~4회 정도의 국내 학술대회, 세계적인 법학 연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소통과 교류를 통한 학문적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많은 세미나와 강연회 등을 여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각 센터가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학연구원은 연구센터 자체의 홈페이지나 사무실 등 공간을 마련하여 인프라를 제공하고 후임 및 기부를 독려하여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는 등 연구센터의 활동을 물적·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23개의 전문연구센터가 있지만, 사실 모든 센터가 똑같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인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하여 독립공간과 전임연구원을 두면서 다양한 자체 세미나, 연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연구센터가 있는 반면, 소속 교수들이 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법제개정 작업에 참여하면서 법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연구센터의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연구원은 체계적으로 각 연구센터가 여는 행사나 달성한 업적을 취합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뉴스레터 배포나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법학연구원장으로서 첫 소임과 목표는?

신임원장으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연구센터가 활발히 운영하려면 외부와 소통하며 필요한 과제를 찾아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고, 그러려면 개별 공간이나 주소·전화 등의 열린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체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각 센터별 독자적인 홈페이지나 이메일 계정조차 없는 상황

이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상 공간부터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학기 중에 각 연구센터의 소속 인원, 예산 등 현황을 조사하여 앞으로 법학연구원이 센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 법학연구원의 당면 과제는?

각 연구센터가 전문적인 연구를 효과적이고 집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센터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하는 형태였고, 주로 해당 법학 분야와 연관된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현재 각 연구센터가 받은 후원금이 법학연구원 운영에 일부 사용되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법학연구원을 매개로 후원금을 공유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간 공동학술대회를 여는 등 함께 활동하여 연구센터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학연구원의 저널 발간에 관해서도 후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로스쿨 학생들에게 법학연구원이란?

법학연구원은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CLEC 등에 비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순수 학문 연구 중심이다 보니 아직 그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학연구원 그리고 연구센터도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며, 이미 여러 연구센터가 실무교육 및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 참여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연구센터가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받아 보거나 교육 및 세미나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분야의 중요 이슈를 배우고 또 교수님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KU**

김소경 법학전문대학원 7기

##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시선

조영선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세계적으로 특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논쟁으로 일반인들에게까지 '특허'를 통한 아이디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조영선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특허법원 판사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부장판사), WIPO 아시아-태평양 지적재산권 법관 회의의 한국 대표를 역임하며 특허법과 지적재산권법에 정통한 석학으로서 강의와 저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대법학>은 조영선 교수를 만나 관련 과목과 그의 저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 '지적재산권법개론', '특허법', '국제지적재산권법'의 핵심 주제는?

먼저 1학기에 개설한 과목 '지적재산권법개론'은 크게 '특허', '저작권', '상표' 3가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기본적인 지식과 핵심 판례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법리들을 배우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지적재산권을 선택할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학기에 개설한 과목은 '특허법'입니다. '특허권'을 얻기 위한 실제적·절차적 요건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주로 다루며, 졸업 후 실무에 나가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스킬을 길러줄 것입니다. 마지막 과목은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국제지적재산권법)'로 미국과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의 기초내용을 비교하며, 학생들이 실무에서 다른 나라를 파트너로 한 IP소송을 수행할 때 필요한 기초지식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개 과목의 공통 목적은 지적재산권 분야를 잘 다룰 줄 아는 '법률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공계적인 배경지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초가 없는 학생이라도 리걸마인드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부분을 세계 법 시리즈로 출간한 소감과 의의

Wolters Kluwer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출판사로 특허 경영과 법 분야에서도 저명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Wolters Kluwer의 세계 법 시리즈(IEL: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aw)는 각국의 다양한 분야의 특별법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소개하여 백과사전식으로 출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것은 세계 법 시

리즈(이하 IEL) 중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부분으로 세부적으로는 특허, 저작권, 상품, 디자인, 식물 신종보호, 영업비밀, 부정경쟁, 반도체보호 등 지적재산권의 다양한 하위 분야들을 관련 판례와 함께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IEL은 기본적으로 루즈리프식, 즉 가제식으로 제공되며 e-book, 단행본 등 다양한 형태의 출판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저자에게 1~2년마다 개정 의사를 물어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먼저 IEL을 출간하게 된 것에 대해 감개무량합니다. 세계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신중해야 했고, 교수로서 수업과 논문 등 다른 일과 병행하며 2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초로 한국 지적재산권의 전 분야를 망라한 체계서를 영문으로 출간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지적재산권법을 소개할 뿐 아니라 국내 로펌들이 한국 지적재산권법을 영문으로 표현하는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하겠습니다.

###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지적재산권법은 관심과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일을 제대로 알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은 적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기본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이공계 분야의 전공지식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높은 진입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입견만큼 이공계 분야의 지식이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적재산권법도 다른 법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리걸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적재산권은 국제적으로 많은 쟁점

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함께 갖춘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 학생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기초지식을 착실히 쌓아가길 바랍니다. **KU**

김현경 법학전문대학원 5기, 나지선 법학전문대학원 6기



# 2015 법학전문대학원 인턴 및 취업설명회 미래의 기회 탐색, 진로의 정보 교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4월 27일(월)~5월 12일(화)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2015년 인턴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취업설명회의 목표는 1학년 재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미래와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며,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 인턴십과 채용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 11개의 법무법인 포함 14개의 기관이 참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턴 및 취업설명회에는 고대법학의 역사와 전통, 자부심과 명성을 확인시키듯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바른, 지평, 로고스, 충청, 한결 11개의 법무법인을 포함해 삼성, 경찰청, 검찰 등 총 14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취업, 채용연계와 기관소개 및 채용정보 설명, 인턴십 모집정보 등 종합적이고 열린 채용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날 이대희 학생부원장은 설명회 시작 전 기관 별 채용담당자와 면담 시간을 마련하여 학교와 기관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도모하였다.

각 설명회마다 학생들 150여 명이 참석하여 베리타스홀의 자리가 부족했을 정도로 재학생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학생들은 국내 우수 대형 로펌들이 대거 참석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생생한 체험담과 조언으로 함께한 고대인

모든 설명회에는 각 기업과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대거 참석하여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통해 각 기관의 문화와 진로 분야의 특색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설명해주었다. 특히 처음 입사했을 때 느꼈던 떨림,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배우는 회사의 문화, 왜 이 기관에 들어오고 싶었는지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귀중한 정보들을 전해주었다.

또한 로스쿨 시대를 맞이하여 변호사들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취업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은 자신들의 주요 업무, 원하는 인재상, 후배 법조인들에게 기대하는 바 등을 피력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미리 영입하고자 한다. 동시에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과 성향에 맞는 진로를 미리 탐색할 수 있다. 특히 매년 우수한 법조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향한 사회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각 기관들도 취업설명회를 통해 인재 영입의 풀을 넓히고 있다.

이번 2015 인턴 및 취업설명회는 많은 선배들의 조언과 재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본 설명회를 양적, 질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취업설명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는 크게 법무법인(로펌), 사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이다. 각 기관의 성격과 문화에 따라 원하는 인재상과 업무의 내용 등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설명회를 통해 이를 미리 파악하여 자신의 진로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

## 정부기관은 실무 중시

검찰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 정부기관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공직에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일 것이다. 검찰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평가 등 다단계 역량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그 중 검찰실무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록평가와 역량평가를 위해 수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특히 검찰 채용절차는 서류전형부터 최종 면접전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플랜인데 한 번의 시험으로 지원자들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덧붙여 검찰 채용담당자는 “검찰은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검찰 실무과목과 검사임용에 있어 훌륭한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훌륭한 성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학생들의 자부심을 고무하며 검찰 채용에 대한 그들의 꿈을 격려했다.

## 사기업은 특수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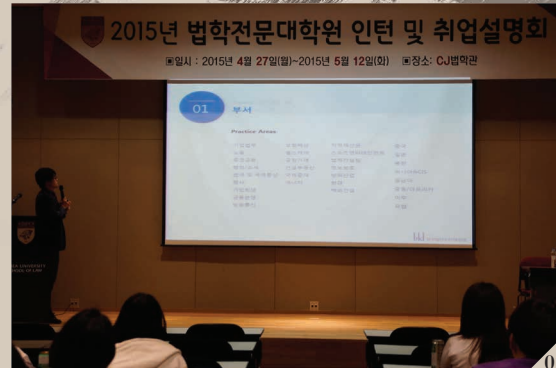
사기업의 업무는 해외 portion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 대형 로펌에 비하여 해외 변호사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 해외 변호사들과 협업할 기회가 많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 특히 외국어 능통자들은 해외 법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사내변호사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사의 임직원이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법률전문가의 신분으로 좀 더 존중하여 별도의 변호사 직급체계로 대우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도 일반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친 후 정식 채용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법무법인과 마찬가지로 서류와 면접 전형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은 전문성 강조

법무법인은 일반적으로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이용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전형을 시행 후 신입 변호사를 채용한다. 실무수습에서 수행한 과제의 완성도, 선배 변호사님들과 원활한 소통능력, 동기들과의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최종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졸업 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꿈꾼다면 신입 변호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곳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법무법인들은 신입 변호사에게 투자하여 전문성 있고 완성된 변호사로 성장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사회성, 조직에 대한 적응력 또한 강조하고 있다. 각 법무법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신입 변호사 또한 중시하기를 원하며, 회사의 구성원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트레이닝과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획일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연령, 성별, 학교, 능력을 갖춘 신입 법조인들을 원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한 채용담당자는 ‘취업을 원하는 기관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면 꼭 참여해야 하며, 특히 선배 법조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조언을 주었다. 취업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도 수상경력 등을 지나치게 나열하기 보다는 리얼 마인드와 기타 경력 및 직업적 삶에 대한 열정과 태도가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기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진솔하게 보여야 함을 강조했다. KL

윤성진 법학전문대학원 6기, 박민선 법학전문대학원 6기



01 법무법인 태평양의 소개 및 채용 정보에 대한 설명회 모습  
02 검찰 채용 정보에 뜨거운 관심으로 참석한 학생들



## 제59회 로스쿨 해외저명인사 특강 국민이 원하는 사법정의에 귀를 기울여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법조계를 비롯하여 사회의 각계 분야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과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2015년 5월 22일에 있었던 제59회 해외저명인사 특강에서는, 미국 미네소타 주의 램지카운티에서 존경받는 지역감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John Choi(한국이름 최정훈)가 고려대학교를 방문하였다. 과연 그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였을까?



### 세인트폴시 검사로 제2의 삶을 시작

John Choi 검사장은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네소타 주에서 가장 명문으로 알려진 햄린 대학교(Hamline University)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마친 후 'Hessian, McKasy, & Soderberg', 'Kennedy & Graven' 등 우수 로펌에서 법조인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전문 분야는 대정부관계, 행정법, 상법 등이었고 6년 안에 파트너 변호사가 될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공직에 대한 열망이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그는 범죄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관심이 많았다. 나이가 더 나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평생을 자라온 세인트폴시에 속한 검사로서 제2의 삶을 시작하였다.

### 첫 아시아인 아메리칸 선출직 검사장으로 당선

그는 형사 정의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지역 사회에서의 신뢰를 얻었다. 조직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과 입법부와 적극 공조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공고한 사법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9년 국제도시변호사회(I.M.L.A)로부터 북미주 최우수 검사로도 선정되었다.

이후 2010년 미네소타 램지카운티에서 미국 역사상 첫 아시아인 아메리칸 선출직 검사장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한 그는 공정한 기소, 주민안전과 복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의 보호, 성범죄 차단을 위한 조치 등 뛰어난 리더십과 정책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지지를 받았으며 재선에도 성공하였다.

### 시민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사명을 감당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의 발자취를 담담하게 이야기한 뒤, John Choi 검사장은 변호사란 단순한 일자리(job)이 아니라 고귀한 직업(profession)이라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사명을 갖고 법조인의 삶을 살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시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법조인의 책무로 눈 앞의 이익보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힘을 것을 조언하였다. 검사에게는 기소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이 주어지는 만큼 아집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정의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면, 그 또한 미국 특유의 제도인 지역감사장 직선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그 취지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표하였다. John Choi 검사장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검사라는 직업은 시민기업, 정부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 선을 정

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법시스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것이 법조인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법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감명한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질문들을 던졌다. 젊은 나이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아시아인으로서 힘든 적은 없었는지, 미국에서 법률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적극적인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servant leadership, 즉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자신의 직원들, 지역 주민들을 항상 섬기는 자세로 대한 것이 재선의 요인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며 겸손하게 강연을 마무리지었다.

John Choi 검사장은 이처럼 검사 등 공직에 있는 법조인 뿐만 아니라 모든 법조인이라면 새겨야 할 가르침을 주었다. 이웃, 지역 더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률전문가로서 어떠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일 것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가슴 속에 원대한 포부를 펼쳐준 John Choi 램지카운티 검사장에게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KL

김재희 법학전문대학원 6기

## Seminar

# 한국건설법학회 초대총회 개최

지난 4월 27일, 본교 CJ법학관 리베라타스홀에서 한국건설법학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총회에는 김홍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이, 학계에서는 본교의 김규완 교수, 경희대 박수근 교수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변호사로는 로펌의 건설부동산팀 소속 변호사들과, 건설관련기업의 법무팀 사내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국내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관련된 전문법학회가 창립됨에 따라, 향후 학계와 실무간의 활발한 교류가 촉진될 것이 기대된다. 이 날 총회는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윤 변호사는 "건설관련법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리적 분석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실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뤄져야 합리적 해결이 가능한데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가 없어서 아쉬웠다."며 "앞으로 한국건설법학회가 실무와 이론의 활발한 상호 이해를 통해 건설분쟁 예방과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한국건설법학회는 6월 29일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차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School Life

# 건설부동산법학회 'Archi-Law'

수업 및 각종 시험으로 가득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우들의 일상에서 자치활동의 활성화란 상당히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는 20여 개에 달하는 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고대법학> 여름호에서는 '건설부동산법학회 Archi-Law'를 소개하기 위해, 회장 오재완 학우(5기)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01 법무법인 세종, 한용호 대표변호사의 특강  
02 점심시간을 이용한 주간 세미나

건설부동산법학회 Archi-Law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rchi-Law'는 2014년 1학기에 5기와 6기를 중심으로 창단된 젊은 학회입니다. 현재 1학년 11명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의 학우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건축학, 토목공학 등을 전공하거나 건설회사에 재직했던 학우들이 많아 서로 다채로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건설부동산법이라는 분야가 조금 생소한 데, 간단히 설명한다면?

건설부동산법이란,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법률과 주변 법률을 통칭합니다. 좁게는 건축물과 대지를 특정하여 다루는 법률인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해당하고, 넓게는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민법상 여러 법률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가령 우리 학회의 세미나에서는 <건설관계분쟁법>이라는 도서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문제사안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역시 골자는 민법상의 여러 이슈들에서 파생됩니다. 건설부동산법이 민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법을 통섭하여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법률지식뿐 아니라 건설과 각종 규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 실무와의 적합성도 높이려고 합니다.

올해의 활동은 어떠했는지?

현재 세미나 활동과 특강을 통해 이해와 경험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주간 세미나를 진행하는 데, 최근에는 한국건설법학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윤재윤 변호사가 쓴 <건설관계분쟁법>이라는 책을 교재로 선정하여 매주 학회원들이 돌아가며 발제를 맡아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첫 시도였는데, 반응이 좋아 1학기의 정례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5월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팀을 방문하여 한용호 대표변호사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로펌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겪는 각종 이슈들과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한 시각을 기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김규완 교수의 지도 아래 교내에서 열린 한국건설법학회 창립총회에서 리셉션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이나 비전은 무엇인지?

다음 학기의 계획은 7기 학회원들의 몫입니다. 아직까지 젊은 학회이기에 어떠한 가능성도 열려있으며, 참여하는 학회원들의 의지와 목표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좌우될 것입니다. 다만 1학기에 건설분쟁소송을 다룬 만큼, 다음 학기에는 자문 분야를 주제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건설부동산법이라는 분야의 매력을 보다 많은 학우들에게 알리는 게 학회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다른 법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매력적인 분야인 동시에, 전통적인 민법과 공법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개인의 법 실력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KL

3기 이지은 변호사

#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라



이지은 변호사는 2010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입사하였다. 1학년 때부터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길을 준비해온 그는 현재 광장 노동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의 송무와 자문과 관련한 실무를 맡고 있다. 지금이 있기까지 이지은 변호사가 품은 비전과 그를 이끌 어준 8할의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고대법학>이 그에게 들어보았다.

**Q 졸업 후 1년, 그 간의 소감 및 실무에 대한 첫 느낌**

우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싫습니다. 비교적 일찍부터 노동법 전문 변호사란 꿈을 향해 달려왔고, 현재 제게 주어진 일에 대한 만족감 역시 품어왔던 기대 이상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제 꿈을 이루는 데 충실한 자양분이 되어 준 학교에 더 많은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1년차 새내기 변호사이지만 실무에 임할수록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과 그 안에서 맺어진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Q 학업과 인간관계에 대한 선배의 조언**

일과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공부 분량을 소화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과목, 실무과목 외에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는 미리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관심 분야의 법을 정하기 위해 모든 과목을 맛보기로 들어보는 건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조사를 해보고 한두 과목 정도만 학회 활동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 정도가 좋아요.

최종적으로 특정 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아갈 커리어패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이런 분야에(또는 이런 직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계속 선택해서 들었고, 이런 학회 활동 등을 하였다'는 등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풍성하게 할 것을 권유합니다.

학업에 있어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네요. 특별한 취미 활동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로스쿨 생활 중 치열한 경쟁과 혹독한 평가의 자리를 피할 순 없겠지만, 지금 힘든 일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면 내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교우관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스테디나 조모임 등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소모임'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다 보면 정보를 공유해야 할 때도 많고,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교우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스쿨에서 만난 친구는 경쟁자가 아닌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큰 자산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Q 광장 입사 계기 및 현재 주요 업무**

저는 1학년 말부터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동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온 광장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광장 노동팀'이라는 확고한 브랜드를 믿고 클라이언트들이 일을 주기 때문에, 팀 내부 일부 변호사의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입사 이후 계속 노동 관련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의 경우, 송무와 자문을 함께하는 데 저는 요즘 7대 3 정도로 송무 쪽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 내에는 자문을 더 많이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노동 관련 송무 분야 주요사건으로는 최근 이슈가 많

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사건, 해고 및 정계의 정당성 관련 사건(소위 비정규직), 근로자성 관련 사건, 단체협약 해석 및 노동조합과의 중재제정해석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사건 등이 있고, 자문 분야에서는 사내 하도급문제, 저성과자 관리방법 등기업 인사·노무 전반에 관한 의견서 작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인사·노무 관련 프로젝트,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검토, 근로계약서 및 입원 위임계약서 검토, M&A 인사·노무 부분 실사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로펌 입사를 위한 준비과정**

로펌에는 인턴 과정을 통해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지원 시에는 일단 '자기소개서'에 공을 들였습니다. '평범한 법대생으로서 내 셀링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했고, '기본 법 실력', '외국어', '노동법에 대한 관심'으로 압축해 각 테마별로 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로펌별 인턴과정의 특성에 따라 준비했는데요. 로펌 중에는 우선 과제를 할 때 순발력과 리서치 능력에 중점을 두는 펌과 시간적 여유를 주고 기본적인 법문서 작성 능력에 중점을 두는 펌이 있습니다. 광장(송무 인턴)의 경우 후자 쪽 과제가 많았으므로, 법문서 작성 수업자료 등을 챙겨가서 서면의 목차, 논리적 구성, 문장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세간의 소문과 달리, 광장은 무엇보다도 인턴 시 '과제평가'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배들도 학점이나 스펙이 부족하다 겁부터 먹지 말고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로펌 생활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로펌 변호사는 너무 바빠! 그래서 개인생활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활용은 자기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로스쿨 시절부터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했다면 말입니다.

로펌 변호사는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존중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직업'이므로,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KU**

조승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사이버법센터의 Global Project

# 2015 제6회 중국 고급법관 한국법 연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 사이버법센터는 2010년부터 홍콩성시대학 법률학원(香港城市大學 法律學院,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과 JSD(법학박사) 과정에 참가하는 중국 판사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법 연수를 실시해오고 있다. 해마다 중국의 소장판사 30여 명이 1년간 홍콩성시대학에서 이 과정을 밟고 있으며, 올해에는 JSD 과정의 고급법관들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한국법 연수 프로그램의 시작**

중국 고급법관은 경력 10년 이내의 영어에 능통한 판사들로, 중국 사법부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정의 영어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홍콩성시대학 연수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중국 판사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1주일 동안 한국의 국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을 견학시키고 한국의 법 제도와 사법문화에 대해 교육하게 된다.

**한국의 법 제도와 사이버법에 주목**

중국 고급법관들은 2015년 5월 3일부터 9일까지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민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와 함께 고려대 캠퍼스,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사법연수원, 대한상사중재원,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견학하였다.

5월 4일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용훈 前대 법원장장과 박노형 교수의 특강을 통해 한국의 법제도와 사회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중 간 사이버법 전문가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기**

특히 박노형 교수가 국제사회에서 대두되는 사이버법의 국제규범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민간의 역할, 사이버시큐리티의 중요성을 소개하여 중국판사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중국과는 달리 서방국가들은 사이버공간의 80~90%가 민간에 의해 소유, 운영되고 있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서방과 중국 & 러시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형 교수는 사이버법, 사이버안보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간의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판사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전세계적인 규범 및 조약이 언제쯤 형성될 수 있는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사이버공간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선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활발하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중 사법교류의 교두보를 구축**

이처럼 '중국 고급법관 한국법 연수 프로그램'은 중국

판사들이 한국에서 법치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중국에 돌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고, 법치주의 안착을 위한 사법부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을 주요 가치로 삼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법제도와 사회, 국제법의 흐름을 보다 더 잘 이해하여 한국과 중국의 사법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 FTA 체결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발전함에 따라 기업 및 통상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親한, 知한

중국판사들이 늘어난다면 국내의 기업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센터는 중국 판사 한국법 연수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한중 사법교류의 확대에 기여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U**

김재희 법학전문대학원 6기



중국 고급법관 9인 연수자 명단		
이름	성별	직함 / 소속
徐清宇 서청우	M	Director(정차부 주임) / Higher People's Court of Jiangsu Province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蔣新华 장신화	F	Vice President / Higher People's Court of Xinjiang Autonomous Region(신강유아자치구 고급인민법원)
黄胜春 황성춘	M	Vice President / Intermediate People's Court of Haikou City, Hainan Province(해남성 하이커우 중급인민법원)
陳靖宇 진정우	M	President / Nanchang District People's Court of Wuxi City, Jiangsu Province(강소성 무석시 남창구 인민법원)
李琳 이림	F	Associate Chief Judge / Intermediate People's Court of Guangzhou City, Guangdong Province(광둥성 광주시 중급인민법원)
卞飛 변비	M	Vice president / Nanshan District People's Court of Shenzhen City, Guangdong Province(광둥성 심주시 남산구 인민법원)
刘璟 류경	F	Division Director / Higher People's Court of Xinjiang Autonomous Region(신강유아자치구 고급인민법원)
陳智勇 진지용	M	Presiding Judge / The 3 <sup>rd</sup> enforcement division, Intermediate People's Court of Shiyan, Hubei Province(호북성 심언시 중급인민법원)
呂延銘 여연명	M	Vice presiding Judge / Yantai Tribunal, Qingdao Maritime Court (청도해사법원 연태법정)



사이버법센터는 해마다 일본의 게이오대학교와 함께 아시아포럼(Asia Forum on Cybersecurity & Privacy)을 개최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전문가들과 함께 '사이버안전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을 꾀하고 있다. 특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사이버국방연구센터와 함께 포럼을 진행하여 법 분야와 기술 분야의 융합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포럼은 한국과 일본에서 격년으로 주최하며, 이번 4회 포럼은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열렸다.

- 일정 2015년 6월 11일~13일
- 장소 일본 게이오대학교 G-Sec Conference Room
- 주제 Cybersecurity Standards for the Cloud in the Asia Pacific Region - "Protecting and Sharing Data across National Borders(국가간 데이터의 보안과 공유)"
- 주관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사이버국방연구소센터, 게이오대학교 인터넷·사회연구소(KICIS)

검찰심화  
실무수습과정

# 검찰심화과정 수료인 5기 박선하 바른 배움의 기회를 잡아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선하(5기)입니다.  
2014년 겨울 방학에 참여했던 검찰심화과정에 대한 경험과 도움이 될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바른 진로 결정을 위한 기회

무엇보다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은 검찰심화과정은 검사 선발의 한 평가과정이지만 하나 사실 훌륭한 교육과정임과 동시에 저에게 진로를 '결정'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사라는 확고한 꿈으로 과정에 지원한 대부분의 학생과 달리, 저는 단지 동경과 관심의 대상을 알아보고자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짧게나마 검찰생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검찰 혹은 검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 잡고 비로소 확고한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혹 저와 같은 후배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 검찰의 실무를 체험하는 두 개의 과정

검찰에서의 진로를 꿈꾸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은 기록평가와 역량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그 중에서는 하계 검찰일반실무수습과 동계 심화실무수습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실무수습과정에서는 형사기록을 처음 대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사기록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일선 검찰청에서의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화실무수습과정에서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형사기록을 풀어보는 연습을 하며 강평을 통해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선 검찰청 실습과 영상녹화조사 실습 강의 등을 통해 검사로서의 삶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이 과목의 공부는 필수

우선적으로 '특별형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에서 특별형법의 내용은 빠지지 않고 등장함

니다. 저 또한 선배들에게 들었던 바가 있어 이주원 교수의 특별형법 책을 독학했습니다. 후배들 역시 반드시 특별형법 책을 미리 읽고, 가급적 학교에서 개설되는 특별형법 수업도 들어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총 평점과 검찰실무 과목의 성적이 중요합니다. 검찰실무 과목 중에서도 형법의 '재산죄'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해둘 것이 요구됩니다. 비단 이것은 검찰실

들어하지 말고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먼저 임용된 선배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특히 검찰준비반에서 별도의 자리를 통해 선배들이 작년 심화과정 때 다루었던 기록들, 토론 주제, 공부 방법과 팁을 전수받았습니다. 또 같이 검찰을 준비하는 원우들과 스터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학습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마지막 당부

검찰심화과정에 대비해 미리 형사법을 공부해둔다면 3학년 때는 민사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본 선발 과정을 준비하기 이전까지 변호사시험에 대비한 민사법 공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 후 다시 검찰의 본 선발에 임박해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지요. 남들보다 형사법 공부를 미리 하고 대신 민사법 공부를 조금 뒤에 하는 것일 뿐, 심화과정 등 검찰 선발과정이 특별히 변호사시험 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뜻밖의 소득을 얻었는데, 바로 새로운 인연입니다. 초반에는 검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살벌한 평가의 과정으로 모든 분위기가 삭막할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만나 따뜻한 행복과 진정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통하는 것이 많아 과정이 끝난 지금까지도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찰선발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분량과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춰두어야 한다는 당부를 덧붙입니다. **KL**

김현중 법학전문대학원 7기

직접 경험을 통해  
비로소 확고한 꿈을 품다.  
검사로서의 삶을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다.

무 과목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심화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미리 재산죄의 최신판례를 파악해두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 형사기록연습을 포함하여 형사법 과목들을 2학년 때 집중적으로 수강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기록연습은 3학년 과목으로 미리 듣는다는 것이 다소 버거웠지만 형사법에 더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고 깊이 있는 형사법 공부를 가능케 했습니다.

## 학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3학년 2학기까지 전형이 계속되므로 검찰로 가는 과정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혼자 힘

